

연수국가: 일본

연수기간: '18.11.05. ~ 11.09.

- 2018년 단양군의회 의원 -

#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단양군의회

# 목 차

<b>I. 공무국외여행 개요</b>	1
<b>II. 주요일정</b>	2
<b>III. 방문국(방문지역) 개요</b>	3
<b>IV. 공식기관 방문 활동</b>	4
① 도쿄 소방청 혼쵸 방재관 / 4	
② 요코하마시의회 방문 / 7	
③ 아라카와구 노인복지센터 방문 / 14	
<b>V. 창조도시 도시재생 우수사례 등 벤치마킹 활동</b>	17
① 100여년전 창고를 쇼핑몰로 재생시킨 '아카렌가' / 17	
② 동경내 쓰레기 매립지 도시재생 사례 '오다이바' / 19	
③ 하코네 국립공원 비교 견학 / 21	
<b>VI. 정책제안 및 배울점</b>	25
<b>VII. 국외연수 이렇게 느꼈습니다.</b>	33

- 2018년 단양군의회 의원 -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I. 공무국외여행 개요**

- 여 행 국: 일본(동경, 요코하마, 하코네)
- 여행목적:
  - 재해 대응태세와 준비상황 비교 시찰과 방재교육 훈련 프로그램 및 관련시설 견학을 통해 선진 재난·재해관리 정보 수집
  - 인구 고령화 대비 노인시설 견학 등 선진 복지정책 벤치마킹
  - 선진국 지방정부의 도시정책 및 우수사례 비교견학을 통하여 향후 적용 가능한 자료수집 등
- 여행기간: 2018. 11. 5.(월) ~ 11. 9.(금) / 4박 5일
- 보고서 작성: 단양군 의회
- 여행자 인적사항: 10명(군의원 7명, 의회직원 3명)

구 분	직 위	성 명	비 고
단양군의회	의 장	김영주	
	부 의 장	강미숙	
	의 원	김광표	
	“	장영갑	
	“	조성룡	
	“	오시백	
	“	이상훈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최성근	
	직 원	이충휘	
	“	김혜영	

## II. 주요일정

일자	주요 연수일정	비고
<p>&lt;1일차&gt; 11.5.(월)</p>	<p>○ &lt;동경 소방청 안전재관 방문&gt; — *공식방문 재난관리체계 브리핑 청취, 종합방재시스템 비교 연구, 시설견학 등</p> <p>•명칭 : 東京消防庁 本所防災館 •주소 : 〒130-0003 東京都墨田区横川4-6-6 •전화 : 03-3621-0119 •홈페이지: <a href="http://www.tfd.metro.tokyo.jp/hp-hjbskan/index.html">http://www.tfd.metro.tokyo.jp/hp-hjbskan/index.html</a></p>	
<p>&lt;2일차&gt; 11.6.(화)</p>	<p>○ &lt;하코네 국립공원&gt; 국립공원 관리 및 보전실태 비교견학 단양팔경과 비교견학</p>	
<p>&lt;3일차&gt; 11.7.(수)</p>	<p>○ &lt;창조도시 도시재생 우수사례 요코하마 견학&gt; 100여년전 창고울 쇼핑몰로 재생시킨 아카렌가 요코하마의 중심지역 미나토미라이 21지구 등</p> <p>○ &lt;요코하마 시의회 방문&gt; — *공식방문 일본의 의회제도 비교연구, 양 의회 간 간담회</p> <p>•명칭 : 横浜市議会 •주소 : 〒231-0017 横浜市中区港町1-1 •전화 : 045-671-3040 FAX: 045-681-7388 •홈페이지: <a href="http://www.city.yokohama.lg.jp/shikai/">http://www.city.yokohama.lg.jp/shikai/</a></p> <p>○ &lt;도시재생 우수사례 현장견학&gt; 동경내 쓰레기 매립지 도시재생 사례 오다이바 견학</p>	
<p>&lt;4일차&gt; 11.8.(목)</p>	<p>○ &lt;아리카와 노인 복지센터 방문&gt; — *공식방문 조성 경과 브리핑 청취, 운영현황 및 시설견학</p> <p>•명칭: 荒川区 老人福祉センター •주소: 東京都荒川区荒川1丁目34-6 •전화: 03-3802-1666</p>	
<p>&lt;5일차&gt; 11.9.(금)</p>	<p>○ &lt;귀 국&gt;</p>	

### Ⅲ. 방문국(방문지역) 개요

#### □ 방문국(일본) 정보

- 수 도: 동경(도쿄 Tokyo)
- 인구면적: 약 1억 2700만명 / 약 38만km<sup>2</sup> (※ 한반도의 1.7배)
- 언어 및 기후: 일본어(Japanese) / 해양성의 온화한 기후
- 주요민족: 일본족 (Japanese 98%)
- 종교: 신도(Shintoism), 불교(Buddism), 기독교(Christianity)
- 지 리
  - 일본은 동아시아에 위치해 있으며 남북으로 2,800km에 걸쳐 길게 늘어져 있다. 국토는 4개의 주요섬인 혼슈(本州), 시코쿠(四國), 규슈(九州)와 홋카이도(北海道)와 4,000여개 이상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 총 면적은 약 38만km<sup>2</sup>로 거의 대부분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경작이 가능한 면적은 고작 16% 정도이다.
  - 행정구역상으로는 47도도부현(都道府縣)으로 구획이 나뉘지며, 동경도(도오교토도(東京都), 북해도(홋카이도,北海道), 경도부(교토부,京都府), 대판부(오사카,大阪府)등과 43개의 현으로 이루어져 지방자치제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 체험물가
  - 일본은 우리나라와 환율차이가 크기 때문에 체험물가를 몸으로 느끼는 경우 비싸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예를 들면, 생수 한 병에 150엔(1,490원)정도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비싸다고 생각이 든다.

## IV. 공식 기관방문 활동

### 1] 도쿄 소방청 혼쥬 방재관(東京消防廳 本所防災館)

#### □ 방문개요

- 일 시: 2018. 11. 5(월) 15:30~16:40 / 동경
- 장 소: 東京都墨田區横川4-6-6
- 주요참석자: 나가야마 ナガヤマ
- 주용내용: 방재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관련시설 견학
- 활동사진



#### □ 시설정보

- 도쿄 소방청 방재관은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향하고, 즐겁게 지진의 흔들림 체험, 초기 진화와 응급 구호, 화재 시

연기로부터의 피난 요령 등 방재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체험시설이다.

- 1층에는 지진 체험 코너와 도시형 수해 체험 코너가 있으며, 2층에는 연기 체험 코너와 소화 체험 코너, 응급 심폐 소생 체험 코너가 있다.
- 방재 체험이라고 하는 것보다 방재 교육,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동일본 굴지의 방재 체험관이며, 체험 가이드 투어를 주체로, 즐겁게 확실히 방재를 배울 수 있는 교육 동경도내 유일한 폭풍우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미디어에도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 동경 소방청 안전재관 일반현황

<b>*설립목적</b>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상황에 시민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방법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
개 관 일	1995년 4월 27일
설립주체	동경소방청(지방자치단체)
<b>*특이사항</b>	관람이 시간제로 운영되어 있어, 체험 시설물들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
주 소	東京都墨田區横川4-6-6
전 화	03-3621-0119
URL	<a href="http://www.tfd.metro.tokyo.jp/hp-hjbskan/">http://www.tfd.metro.tokyo.jp/hp-hjbskan/</a>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 동경 소방청 안전재관 주요 프로그램

<p><b>지진 체험 코너(Earthquake Simulation Section)</b>  실제 재난상황과 같은 지진을 체험해 그 무서움을 알고, 만일의 경우의 행동을 배움. 또, 영상에 의해, 지진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p>	
<p><b>연기 체험 코너(Smoke Maze Section)</b>  연기의 특성이나 위험성을 알고, 연기가 충만하고 시야가 닫힌 체험실안을 피난. 올바른 피난의 방법을 배우고 냉정한 판단력과 확실한 행동력을 길러 줌.</p>	
<p><b>소화 체험 코너(Fire Fighting Training Section)</b>  실제 화재를 시뮬레이트 한 대형의 스크린을 사용해서, 소화기 또는 옥내 소화전의 사용법을 배움.</p>	
<p><b>응급 처치 체험 코너(First Aid Training Room)</b>  여기에서는, 심폐 소생법등의 응급 처치를 훈련용의 인형을 실제로 사용해 체험할 수 있음. 또, AED(자동체외식제미세한 움직임기)의 전시 설명을 하고 있음.</p>	
<p><b>폭풍우 체험 코너(Rainstorm Simulation Section)</b>  풍수해를 가져올 정도의 강풍 대비를 체험해, 그 굉장함을 아는 것과 동시에, 강풍이나 큰 비에 관한 지식을 높여 줌.</p>	
<p><b>방재 극장(Disaster Prevention Theater)</b>  음향 시스템, 좌석의 진동 등, 임팩트가 있는 연출을 이용해 지진을 테마로 박력 있는 영상을 상영</p>	

## ② 요코하마시의회(横浜市議會) 방문

### □ 방문개요

- 일 시: 2018. 11. 7(수) 13:30~15:30 / 요코하마시
- 장 소: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나카구 미나토초 1초메 1번지 요코하마 시청
- 주요참석자: 의사과 이케다池田 외 4명
- 주요내용: 요코하마시의 관련 시책 및 우수시설을 비교 견학
- 활동사진



### □ 요코하마시 일반현황

- 위 치: 일본 혼슈[本州] 가나가와현[神奈川県]
- 인구면적: 3,670,500명 / 437.37km<sup>2</sup>
- 행 정 구: 18개구
- 도시정보
  - 1859년의 미·일 수호통상조약에 따라 개항장이 되면서 도시

화의 기초가 성립되고, 1872년 도쿄와의 사이에 철도가 부설됨으로써 일본의 문호로서의 지위가 확립된 일본 최대의 항만이 있다. 1910년대 초와 1955년, 1959년 3차례에 걸쳐 실시된 연안수역의 매립공사로 광대한 공장부지가 조성되자, 종래의 무역도시로서의 기능 외에 공업도시적인 성격이 강해졌다



#### □ 요코하마시 우수정책 사례— <미나토미라이 21>

- 일본 요코하마市の ‘미나토미라이21’ 프로젝트는 1989년 개최된 요코하마 박람회를 계기로 박람회장 및 박람회 시설물을 활용해 미래형 도시지구를 만든, 이벤트형 도시재생의 좋은 사례다.
- 낙후된 요코하마항과 주변지구를 재활성화 하고자 요코하마항과 주변의 10만 588m<sup>2</sup>를 박람회와 이후 연계된 계획에 따라 재활성화 했으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도시수변 재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다.
- ‘미나토미라이21’ 프로젝트는 한국과 중국에 밀려 경쟁력이 떨어진 조선소와 관련 시설, 부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를 활용해 임항파크를 비롯한 공원녹지로 조성하고, 업무와 쇼핑, 음악과 미술, 엔터테인먼트가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 모델을 창조하고자 했다.

- 주요 시설로는 요코하마 미술관,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콘서트홀, 니혼마루(일본 초기의 범선)를 활용한 기념공원, 석조독(Dock)을 개량한 독야드 가든, 요코하마 아이(회전대 관람차)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미나토미라이 지구에 접근하기 위한 기반시설인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에도 같은 개념의 미래형 디자인을 적용해 지구의 성격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 개발기간은 1991년부터 1994년까지 4년간 진행됐으며, 일본 정부와 요코하마市, 민간기업, 제3섹터인 ‘Pacifico Yokohama Corp’가 공동 참여했으며, 일본 정부와 요코하마市는 매립 및 항만 정비 등 기반시설의 조성과 미술관 등 공공시설의 건립을 담당했고, 민간기업은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을 담당해 개발의 신축성과 공공성 확보 등의 균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나토미라이21 지구 사례는 매력적인 수변공간 창출이 도시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자원임을 인식하게 된 최근의 도시수변공간 개발사례에 부합한다.
- 세계 대도시들이 물과 인접해 건설됐으며, 최근 도심재개발을 통해 도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수변공간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수변공간 개발은 도심부 재개발의 주요 전략의 하나로 자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나토미라이21 지구가 가진 가장 큰 의미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체계에 기반을 둔 개발의 신축성과 공공성 확보 사이의 균형에 있다. 그뿐 아니라 문화를 중심으로 과감한 도시재생 전략을 취함으로써 물리적 공간 개선뿐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공간 개선이 병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 요코하마 시의회 일반현황

### ○ 개 요

- 1889년 시제 시행에 따라 의사 기관으로서 '요코하마 시회'를 설치한 경위로부터 지방 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회를 '시 의회'로 개정한 뒤로도 요코하마시는 지금까지도 의회를 '시회'로 명명하고 있다.

### ○ 조 직

- 의 장: 마츠모토 켄(자유 민주당)
- 부 의 장: 모리 토시아키 (민권 포럼)

### ○ 의 회 국

- 요코하마 시회에는 원활한 의회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의회국이 설치되어 있다. 의장에 의해 임면된 의회국장과 서기가 본 의회나 위원회에 관할 사무나 의회 활동에 필요한 조사, 자료의 수집 등 의회 활동 보조를 하고 있다.
- 의회국의 조직과 주요 업무

조직구성		주요업무	비고
의회국	총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회의 서무 전반에 관한 일</li> <li>· 의회에 관한 홍보 및 보도에 관한 일</li> <li>· 본 회의의 방청에 관한 일</li> </ul>	
	의 사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의회에 관한 일</li> <li>· 상임 위원회 · 특별 위원회에 관한 일</li> <li>· 시회 운영 위원회에 관한 일</li> <li>· 청원 · 진정에 관한 일</li> </ul>	
	정책조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의 시정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일</li> <li>· 의회에 관한 기획에 관한 일</li> </ul>	

○ 의회운영

- 회 기: 요코하마시는 통례로서 2월, 5월, 9월, 12월로 연 4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그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 따라 임시회가 열린다.
- 일반질문: 일반 질문은 각 정례회의 본 의회에서 의원 개인이 시정 전반에 대해 시장부터 집행 기관의 생각이나 정책(기획)의 설명을 구할 수 있는 질문을 말한다. 요코하마 1번의 의회에서의 일반질문의 질문자수는 교섭 회파에서는 회파 의원 수가 10명까지인 회파는 2명, 10명을 넘는 회파는 10명을 넘을 때마다 1명씩 질문자 수를 늘린다. 비교섭 회파는 질문자를 1명만 내보낼 수 있다.

○ 상임 위원회

위원회 명	정원	소관 사항
정책, 총무, 재정 위원회	11명	중요 정책의 입안·조정에 관한 사항 시정 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남녀 공동 참여에 관한 사항 기지 대책에 관한 사항 요코하마 시립 대학에 관한 사항 시정 개혁에 관한 사항 위기 관리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국제, 경제, 항만 위원회	11명	국제 정책에 관한 사항 기업의 유치에 관한 사항 중소 기업의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고용·취업 대책에 관한 사항 소비 생활에 관한 사항 항만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항의 진흥에 관한 사항

위원회 명	정원	소관 사항
시민, 문화관광, 소방위원회	11명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인권 시책에 관한 사항 시민 협동에 관한 사항 구정 지원에 관한 사항 홍보에 관한 사항 스포츠 진흥에 관한 사항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관광 교류에 관한 사항 컨벤션에 관한 사항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 방범 대책에 관한 사항 구급에 관한 사항 소방에 관한 사항
유아 청소년, 교육 위원회	11명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 보육소 정비에 관한 사항 유아 복지에 관한 사항 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 평생 교육에 관한 사항
건강복지, 의료 위원회	11명	지역 복지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고령 시민 복지에 관한 사항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식품 위생에 관한 사항 감염 질병 대책에 관한 사항 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지역 의료에 관한 사항 시립 병원 경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 명	정원	소관 사항
온난화 대책, 환경 창조 자원 환경 위원회	11명	지구 온난화 대책에 관한 사항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농업 진행에 관한 사항 공원 · 하수도 정비에 관한 사항 쓰레기 감량 · 자원화에 관한 사항
건축, 도시 정비, 도로 위원회	10명	도시 계획의 책정에 관한 사항 주택 정책의 정비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확인에 관한 사항 개발의 허가에 관한 사항 종합 교통 계획에 관한 사항 주차장 대책에 관한 사항 시가지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도로나 교량 정비에 관한 사항 하천 정비에 관한 사항 교통 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 불법 주차 차량 대책에 관한 사항
수도, 교통 위원회	10명	수원 확보에 관한 사항 수질 대책에 관한 사항 배수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시영 버스 노선 정비, 운행 관리에 관한 사항 시영 지하철의 건설, 운행 관리에 관한 사항

### ○ 특별 위원회

- 특별 위원회는 부 의사건(사회 의결에 의해 정해진 시정의 특정 문제)에 대해 심사 또는 조사 · 연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현재 6개의 특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 대도시 행정제도 특별위원회, 기지 대책 특별위원회  
재해피해 감소대책추진 특별위원회, 고립되지 않는 지역만들기 특별위원회  
관광창조도시 · 국제전략 특별위원회, 건강 만들기 · 스포츠 추진 특별위원회

### ③ 아라카와구 노인복지 센터(荒川区老人福祉センター) 방문

#### □ 방문개요

- 일 시: 2018. 11. 8(목) 09:30~11:00 / 동경
- 장 소: 東京都荒川区荒川1丁目34-6
- 주요참석자: 츠마가리과장 津曲課長
- 주요내용: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시설 시찰 등 선진 복지 벤치마킹
- 활동사진



#### □ 아라쿠와구 기본정보

- 인 구: 206,749명(※고령화율 22.4%)
- 제1호 피보험자수: 46,426명
  - 65세~74세: 23,753명 / 75세 이상: 22,673명
- 고령자 세대수: 35,154세대 / 독신가구: 16,004세대

□ 아라카와구 노인복지 센터 시설정보

- 아라카와 구 노인 복지 센터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생활이나 건강의 상담을 진행함과 동시에 기능 훈련이나 건강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 문화 교양 교실을 개강하여 교양의 향상을 꾀함과 함께 레크레이션에 위한 편의를 제공하며, 고령자 여러분들의 삶의 보람과 사회 참가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
- 시설현황

소재지	〒116-0002 東京都荒川区荒川1丁目34-6
개관시간	평일 9:00~17:00 *일요일, 공휴일(경로의 날 제외), 연말연시는 휴관
설치주체	아라카와 구
운영주체	사회 복지 법인 아라카와구 사회 복지 협의회
주요 시설안내	3층: 이코이실(화실), 오락실(바둑, 장기, 오셀로), 다실, 욕실 *아라카와 동부 재택 고령자 통소 서비스 센터 병설 4층: 제1회의실, 제2회의실, 제3회의실, 플레이 코너(범퍼), 도서코너, 카페 *4층 카페 「마가렛」은 「장애 아동을 가진 어머니 모임」이 운영
지역 센터 설치 현황	총 5개소(직영 0, 위탁 5)
사업 내용	회의실 대절, 건강 상담 및 생활상담 사업, 기능 회복 훈련 사업, 입욕 서비스, 건강 보지, 유지 사업 및 만남 사업, 문화 교양 교실 등

□ 아라카와구 노인복지 센터 경쟁력

○ 의료, 간호 전국 1위, 생활지원과 예방 11위,

사회 참가 제 13위 등 전국 종합 제 2위

- 고령화 이사 집세 보조금 제도의 실시나 아라카와 코로방 체 조 등 독자적인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음.
- 임대 주택에 사시는 고령자가 내진성이 뛰어난 주택으로 이사하실 때 차액의 집세분을 보조(상한 4만엔)하는 식으로 집세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고령화 대응도 랭킹 2위 기록 (2013.11.04 시행)

순위	시구명	종합득점	의료, 간호	생활지원예방	사회참가
1	도치기현 코야마 시	68.8125	20.875	16.625	10.500
2	도쿄도 아라카와구	66.3750	23.750	16.750	9.125
3	도쿄도 신주쿠구	64.8125	21.125	16.250	4.625
4	사이타마현 와코시	64.0625	18.750	15.000	11.500
5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63.5000	20.000	18.750	4.125

○ **간호 예방, 일상생활 지원 종합 사업을 이용하여 자립한 생활을 계속하자!**

- 간호 예방, 일상생활 지원종합 사업은 65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시, 구, 정, 촌이 실시하는 간호 예방 사업, 간호 보험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한 분 한 분의 생활에 맞춘 유연한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

## V. 창조도시 도시재생 우수사례 등 벤치마킹 활동

### 1 100여년전 창고를 쇼핑몰로 재생시킨 아카렌가

#### □ 방문개요

- 일 시: 2018. 11. 7(수) 09:30~11:00
- 장 소: 요코하마시 나카구 신코 1-1
- 주요내용: 창조도시 도시 재생 우수사례 견학(요코하마항의 상징적 건물 아카렌가)
- 활동사진



#### □ 아카렌가 탄생 역사

- 일본 에도 시대 200년 이상에 걸쳐 이어진 쇄국이 끝나고 세계를 향해 문호를 개방한 일본, 그 교역의 중심 중 하나가 된 것이 요코하마. 요코하마 빨간 벽돌 창고는 이러한 시대의 요청에 따라 탄생하여 격동의 20세기를 거쳐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음.

○ 주요 역사적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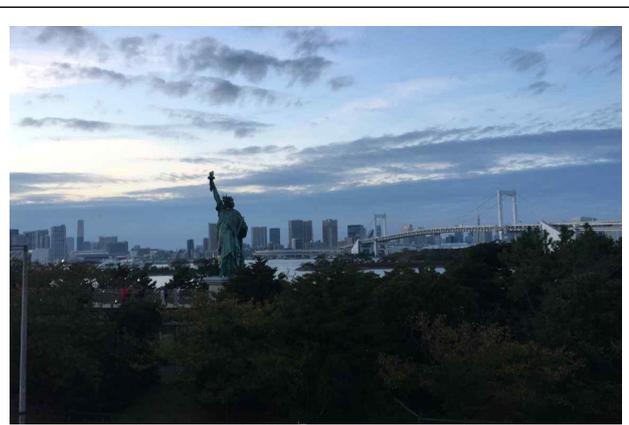
연대별	역사적 내용
1859	<p style="text-align: center;"><b>요코하마 개항, 새로운 시대의 개막</b></p> <p>요코하마 빨간 벽돌 창고의 탄생</p>
1923	<p style="text-align: center;"><b>간토 대지진 발생, 창고 반괴</b></p> <p>지진으로 1호 창고가 반파되는 큰 피해를 입었지만 건물에 내진기술이 적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한 붕괴는 막을 수 있었다.</p>
1930	<p style="text-align: center;"><b>복구 공사 종료, 재스타트</b></p> <p>관동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1호 창고는 반정도 규모를 축소시키고 2호 창고도 내진구조를 강화하는 등 개보수 공사를 실시했다.</p>
1970	<p style="text-align: center;"><b>창고의 보존 검토</b></p> <p>창고로서의 역할이 격감되자 건물 해체 등이 고려되어 오고 있던 중, 요코하마시는 1983년에 ‘미나토미라이 21’ 사업에 착수, 신항지구 <u>아카렌가 창고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관을 살리는 시가지 만들기 사업</u>이 실시되었다.</p>
1992	<p style="text-align: center;"><b>요코하마시가 국가로부터 취득</b></p> <p>요코하마시 당국은 일본 정부와 협상 끝에 아카렌가 창고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보존·활용검토위원회’를 설치, 보존활용을 향해 크게 진전했다.</p>
1999	<p style="text-align: center;"><b>요코하마 빨간 벽돌 창고사업 컨셉트 결정</b></p> <p>‘<u>항만의 활기와 문화를 창조하는 공간</u>’을 사업의 컨셉트로 요코하마 문화를 창출하고 시민의 휴식처와 활기찬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p>
2000	<p style="text-align: center;"><b>활용을 위한 내부 개수 공사</b></p> <p>상업시설로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내부 개보수공사가 진행되었다. 공사에 임할 때는 <u>역사적인 건물이란 기억을 남길 목적으로 창건 당시의 건축 재료를 여기 저기 활용하는 궁리</u>를 했다.</p>

연대별	역사적 내용
2002	<p style="text-align: center;"><b>리뉴얼 오픈</b></p> <p>약 9년간에 달한 보존·활용 공사를 거쳐 2002년 4월 12일에 아카렌가 창고는 문화·사업시설로 새롭게 태어났다.</p>
2007	<p style="text-align: center;"><b>‘근대화 산업유산’ 으로 인정</b></p> <p>경제산업부의 ‘근대화 산업유산’으로 인정, 일본의 산업 근대화에 크게 공헌하고 요코하마항 발전사를 보여주고 있는 근대화 산업유산의 하나로 인정</p>
2010	<p>‘유네스코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아시아태평양유산상’ 우수상 수상</p>

## ② 동경내 쓰레기 매립지 도시재생 사례 오다이바 견학

### □ 방문개요

- 일 시: 2018. 11. 7(수) 16:00~17:30
- 장 소: 요코하마시 나카구 신코 1-1
- 주요내용: 도시재생 우수사례 현장 견학(동경 임해부도심 오다이바)
- 활동사진



## □ 동경 오다이바(Odaiba) 도시재생 개요

- 오다이바의 개발목적은 세계화와 정보화에 대응하기 위한 동경 부도심 개발과 다양한 기능을 갖춘 이상적인 도시건설이다. 오다이바는 동경도심 남측 6km 지역의 동경만 매립지에 건설된 부도심이다.
- 면적은 4,480,000m<sup>2</sup>이며, 1988~2010년 사이에 개발되었다. 개발 주체는 동경도가 매립과 기반시설조성을 담당하고, 주택국과 항만국 등은 공공시설 개발을 담당하였으며, 민간은 제3섹터 방식으로 참여하였다.
- 원래 오다이바는 제2차 대전 이후 공업용지와 동경도의 도심 쓰레기처리를 위한 매립장으로 사용되는 등 방치되었던 곳이다.
- 동경도에서 도심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임해부의 개발을 진척 시키고자 '임해부 부도심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오다이바 개발의 전기가 마련되면서 개발이 본격화 되었다.
- 오다이바 개발은 1단계(1995), 2단계(1996~2000), 3단계(2001~2003), 4단계(2004 이후)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 오다이바 개발사업은 1986년에 제2차 동경 장기계획에 오다이바를 부도심으로 선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88년 임해부도심 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1989년 임해부도심 개발사업 추진되었다.
- 1996년 개발계획 재검토 및 기본방침 결정, 1997년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정비추진계획을 통해 개발이 본격화 되었다.

- 오다이바는 지구별로 해변가의 상업·업무 복합지구인 다이바 지구, 현대식 주거기능이 도입된 아리아케 키타지구, 국제 전 시장 등이 입지한 컨벤션지구와 아리아케 미나이, 도시형 산업·연구개발지구인 아오미지구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 오다이바 지구는 상업, 업무, 주거, 문화, 휴식, 오락 등 모든 기능이 집적된 복합개발의 성공 모델로 알려지고 있으며,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방문하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 ③ 하코네 국립공원 비교 견학

#### □ 방문개요

- 일 시: 2018. 11. 6.(화)
- 장 소: 하코네 국립공원
  - 하코네 유황계곡 오와쿠다니 견학
  - 웅장한 숲을 자랑하는 삼나무길 산책
  - 칼데라호수인 아시호수 유람선 탑승 비교 견학
- 주요내용: 하코네 국립공원 관리 실태 비교 관찰
  - 아직도 여기저기 유황연기를 뿜어내고 있는 와쿠다니 계곡과 일본의 4대 자연호수의 하나인 아시호는 전형적인 칼데라호수로 주변경관이 아름답다
  - 이러한 신비한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었으며, 각 국의 통역을 배치하고 자세하고 친절의 안내판을 곳곳에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있었음.

- 또한,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호수 옆에 세키쇼란 검문소가 있었는데 일본의 막부시대 에도에 들어오는 요충지였으며 한국의 민속촌처럼 자료전시관을 만들어 당시 모습을 재현하고 역사박물관을 만들어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천혜의 자연, 인문과 역사를 잘 조화시켜 일본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 세심한 관광정책이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국위를 선양한다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는 곳이다.

○ 활동사진



□ 유허계곡 오와쿠다니

- 아직도 유허 냄새가 진동하는 오와쿠다니는 '지옥 계곡' 또는

‘대지옥’이라 부르는 곳으로 3,100년전 하코네 화산이 분화되어 생긴 가미야마 분화구다. 웅장하고 경이로운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찾는다.

- 오와쿠다니는 약 3,100년 전과 2,900년 전 하코네 화산이 두 차례 걸쳐 분화했을 때 생긴 분화구 흔적이다.
-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오와쿠다니 계곡 밑에서 분출되는 가스가 보인다. 이것이 바로 온천의 진원지다. 지옥곡(地獄谷)이라 불릴 만큼, 하얀 수증기가 부글부글 끓고 유황 냄새가 코를 찌르는 곳이다.
- 오와쿠다니 주변은 대부분 강한 산성 토양으로 이상한 모양의 식물이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가는 곳이다. 모양이 특이해서 관찰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오와쿠다니의 명물인 ‘쿠로타마고’도 빼놓을 수 없다. 쿠로타마고는 유황 물에 삶아서 껍질이 검게 변한 달걀이다. 한 개 먹을 때마다 수명이 7년 늘어난다는 속설이 있다.

#### □ 웅장한 숲을 자랑하는 하코네 삼나무길

- 에도 시대에 조성되어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다. 가장 어려운 코스인 하코네 8리는 내리막과 오르막이 있어 그냥 걸기에는 조금 힘에 부친다. 하타주쿠 ~ 하코네마치가 가장 인기 있는 코스다.
- 나란히 늘어선 삼나무 가로수가 아름다워서 많은 이들이 데이트하기 좋은 곳으로 꼽는다. 삼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해 머릿속까지 맑아진다.

- 삼나무 자체가 일본의 역사적·문화적 자원이자 자랑거리였다. 우리 단양은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82%가 산림이다. 그러나 산림자원으로 경제성까지 높일 수 있는 자연환경 보존은 후진적이며, 아직 많이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날 세계 유수의 문화관광지는 그 나라의 유구한 문화유산이 미래의 먹거리로 재탄생됨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탐방이었다.

#### □ 아시호수 해적선(동심의 눈으로 물 위를 즐기는 아시호수)

- 모토하코네 항에서 도젠다이 항을 오가는 해적선은 일반실과 특실로 나뉘어져 있고 1층이 일반실, 2층이 특실이다.
- 해적선에 탑승하면 원피스 복장의 직원들이 함께 사진을 찍어 주는데 소정의 비용만 지불하면 기념샷도 함께 찍을 수 있다. 기항지로는 도젠다이항, 모토하코네항 및 하코네마치 항이 있으며 3개소를 순환 운항한다. 도젠다이 항에서는 하코네 로프웨이로 갈아 탈 수 있고 유람선은 바사, 로열, 빅토리 세종류가 있다.
- 이 유람선들은 모두 역사 속에 있는 해적선들을 모델로 하여 제작되었다. 동심의 눈으로 물 위를 즐기는 특별함이 있다.

## VI. 정책제안 및 배울점

### 1] 체험으로 배우는 재난 대피요령, 안전해지는 단양!

-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은 우리에게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준 재난이었다.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가장 중요하고,
  - 대피 요령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재난상황 시에는 당황할 수 있어 훈련을 통해 몸으로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 일본에서는 재난 발생 시 자조(스스로 나 자신을 구하라), 공조(이웃과 공조하여 자연재해 구조) 개념의 철저한 재난 대처 요령을 어려서부터 몸으로 습득하고 있었다.
  - 국가에서만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난 대비를 위한 실질적이고 정기적인 체험교육 시행 의무화 필요.
- ⇒ (도입방안) 유치원,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재난 상황에 대한 상황별(지진, 화재(연기), 응급처치, 폭풍우) 체험교육과 훈련을 매년 필수 이수하도록 하는 등 자연재해 대비 및 생활안전 일상화 필요
- ⇒ (도입방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각 마을 단위별 재난발생 시 안전 메뉴얼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공조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및 지속적인 실습 필요

## ②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체계에 기반을 둔 개발의 신축성과 공공성 확보 사이의 균형도모

- 일본 요코하마시의 이벤트형 도시재생 사업인 '미나토미라이21' 프로젝트, 100여년전 창고를 쇼핑몰로 재생시킨 '아카렌가', 동경만 매립지에 건설된 '오다이바'의 성공사례는 모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체계에 기반을 둔 개발의 신축성과 공공성 확보 사이의 균형에 있다.
  - 미라토미라이 21 프로젝트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도시수변 재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 조선소와 부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를 활용해 임항파크를 비롯한 공원녹지 조성, 업무와 쇼핑, 음악과 미술, 엔터테인먼트가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 모델 창조
  - 일본 정부와 요코하마시는 매립 및 항만 정비 등 기반시설의 조성과 미술관 등 공공시설의 건립을 담당했고, 민간기업은 업무 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을 담당해 개발의 신축성과 공공성 확보 등의 균형이 가능
  - 100여년전 창고를 쇼핑몰로 재생시킨 아카렌가는 항만의 활기와 문화를 창조하는 공간을 사업의 콘셉트로 요코하마 문화를 창출하고 시민의 휴식처와 활기찬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추진
  - 특히, 아카렌가는 개보수 공사를 진행할 때 역사적인 건물이란 기억을 남길 목적으로 창건 당시의 건축 재료를 여기저기 활용하는 공리를 한 결과 문화·사업시설로 새롭게 태어났다.
  - 오다이바의 개발목적은 세계화와 정보화에 대응하기 위한 동경

부도심 개발과 다양한 기능을 갖춘 이상적인 도시건설로 동경도가 매립과 기반시설조성을 담당하고, 주택국과 항만국 등은 공공시설 개발을 담당하였으며, 민간은 제3섹터 방식으로 참여

⇒ (도입방안) 우리군에서 단양호 관광종합개발 사업, 소백산리플레시 리조트 조성사업, 소백산 케이블카 조성사업 등 단양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대형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 사업은 일본의 최근 도시수변공간 개발 성공사례에서, 앞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한일·성신 등 석회석 채광지 재개발은 일본의 매립지 개발 도시재생 성공사례에서 단양의 발전적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도입방안) 대형 개발 사업추진 시 역사적 가치 보존, 개발지구 단위 개발사업의 철저한 마스터플랜(컨셉트) 수립 결정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체계에 기반을 둔 개발의 신속성과 공공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도모.

### ③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소통 강화, 정책수립의 공감대 형성, 집행기관과 의회의 상호 협력관계로 발전

○ 요코하마시 의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양 의회 간 다양한 질의 답변이 있었지만,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요코하마 시의회에 부의되는 안건(조례, 요코하마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각종 정책 등)에 대해서 최근 10년 동안 부결된 건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었다.

- 어떻게 요코하마 시의회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부결한 안건이 하나도 없을까 많이 의아해 했지만 그 궁금증은 금방 풀렸다.
  - 집행기관 요코하마시와 의결기관인 시의회가 마치 수레의 양바퀴와 같이 서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소통하며 요코하마시를 이끌고 있었다.
    - 조례제정, 주요 정책수립, 각종 대형 개발 사업을 추진 시 집행기관, 의회, 시민, 각종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를 철저히 이행 한다고 한다.
    - 민의를 제대로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자치단체와 주민 간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실천하고 있었다.
- ⇒ **(배울 점)** 요코하마 시의회에서 최근 10년 동안 부의된 안건 중 부결된 안건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①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전통적으로 시정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협력 관계 형성, ②당파, 정당의 이익에 앞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③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 철저히 이행, 공감대 형성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4 노인복지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노인복지의 해답을 찾자**

- 아라카와구는 동경 23개 특별구 중 하나로 면적은 두 번째로 작은 반면 인구는 21만 5천명으로 인구 밀도는 두 번째로 높아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실정
  - 아라카와구 내에는 약 70여 개소의 노인복지센터가 있어 인구 3,000명 당 1개소의 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 하루 평균 155명이 이용하고, 전체인구의 5%, 노인인구의 25% (고령화율 23% 적용 시) 정도가 매일 이용하고 있음.
- 아라카와구의 노인복지의 큰 주축은 '개호보험(대인서비스센터)', 일본은 노인복지 제도 중 특히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제도로 개호보험제도가 있다. 이 보험은 2000년 도입했고, 우리나라 역시 일본의 개호보험을 모체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중이다.
  - 일본의 개호보험 제도(\*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대인서비스센터		주요내용	우리나라 비교	
개 호 보 험	시 설 서비스	입소자가 시설에 입소해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요양시설	
	재 택 서비스	방문 개호	가정으로 방문하여 식사제공,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방문요양
		통소 개호	집에 있는 어르신이 일정한 기관을 방문하여 재활치료, 식사제공, 프로그램 등을 제공 받음	주간보호 서비스

- 또한, 일본은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노인의 행복을 유지하면서  
개호보험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 노력 중, 2가지 기능을 담당

· ① 경증 개호보험대상자의 서비스 조정 기능: 전문가는 경증  
개호보험대상자의 상담을 통해 꼭 필요한 개호보험 서비스를  
계획하고, 의료서비스 연계를 통해 대상자의 기능을 개선하여  
개호보험 등급에서 벗어나거나 대상자가 건강이 악화되어 중증  
대상자로 변환도지 않도록 함.

· ② 일반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통한 예방 기능: 개호 보험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사전 상담과 건강관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노인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어르신은 건강한 삶을 유지, 개선할 수 있고 개호보험제도  
역시 불필요한 서비스를 줄이고 어르신의 건강한 삶 유지를 통해  
개호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

○ 아라카와구의 노인복지의 또 다른 주축은 '사회복지센터'

-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60세 이상 노인분들  
에게 문화, 스포츠 등의 활동을 제공하며 정신과 신체 건강을  
유지하게 도와 드리고 있음.

- 이 단계의 복지서비스의 가장 큰 목적은 “개호예방”, ‘개호’라는  
뜻은 개별보호(care)로 건강이 악화된 분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해  
드리는 것.

○ 아리카와 노인복지센터의 시설운영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고령화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관, 요양보호센터, 주간보호서비스, 치매안심센터 등의 기능을 한곳에 모아서 하는 곳으로 이해되었다.
- 비록, 시설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서비스가 노인복지센터 한곳에 집약되어 우리나라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추억과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지역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노인복지의 해답을 찾고 실천하고 있었다.

⇒ **(배울 점)** 우리 단양군은 모든 노인복지시설이 현대화 되고 많은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각 시설이나 노인복지서비스 센터가 나뉘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양군의 노인복지정책도 무작정 예산을 투입만 할 것이 아니라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어르신들이 가장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고향과 지역에서 노후를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의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⑤ 미래 단양관광의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 보자!

- 단양의 관광산업은 단양 경제를 이끌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행정구역의 82%가 산림지역인 우리군은 앞으로 산림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개발이 하나의 블루칩이 될 수 있다.
- 일본의 하코네 국립공원이 아시호수를 가졌다면, 우리에게 단양

강이 있고, 하코네 국립공원에 웅장한 숲을 자랑하는 삼나무길이 있다면 우리에게겐 소백산과 월악산 등의 빼어난 명산이 즐비하다.

- 다만, 이번 연수를 통해 한 없이 아쉬웠던 점은 일본 하코네는 역사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관광자원으로 개발이 되었고, 우리 단양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물론, 역사적·환경적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 최근 우리군에서는 단양강 주변과 소백산 일원에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미래 단양의 100년 먹거리를 만든다는 장기적인 안목과 내실 있는 계획 수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 **(도입방안)** 단양호 관광종합 개발사업, 소백산 리플레시 리조트 조성 사업 등 단양의 미래 랜드마크가 될 주요 관광사업 추진 시 동심(童心)을 자극할 수 있는 관광 아이템 개발, 역사적 배경을 스토리텔링화,
- ⇒ **(도입방안)** 산림자원 자체가 관광자원으로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산림관리 및 보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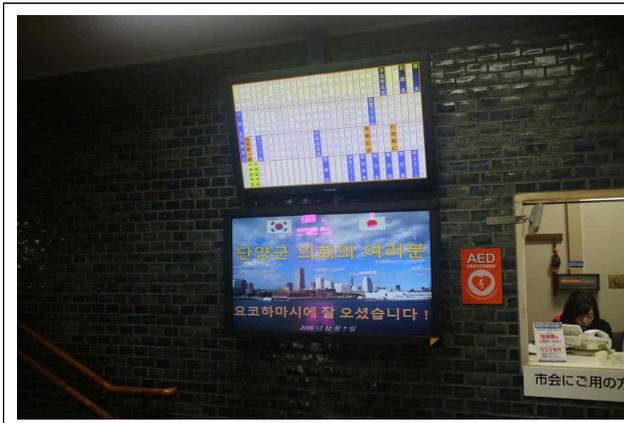
## VII. 국외연수 이렇게 느꼈습니다.

### <김영주 의장>

제8대 단양군의회를 개원하고 처음으로 가는 국외연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촉박하였으나 외유성 연수가 되지 않기를 바랐으며, 연수기간 동안 해당 국가의 의회를 방문하여 서로의 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그 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을 둘러보고 나날이 고령화되어가는 우리 단양군에 맞는 노인복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랐습니다. 이번 일본 연수는 이러한 방향이 잘 반영된 국외연수였습니다.

요코하마 시의회를 방문했을 때에는 그 크기에 매우 놀랐습니다. 시의원이 86명이나 된다고 하니 작은 우리 군과는 규모에서 너무도 달랐습니다. 각 의원들은 회파라는 모임을 만들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정당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7명이 서로 뭉쳐서 정당과 상관없이 군민을 위해 일하려는 우리 의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타국의 작은 의회에서 방문을 하였음에도 요코하마 시의회에서 열심히 준비한 프리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을 보면서 일본이 선진국인 이유를 알 수 있었고, 의원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할 단양군의회 모습에 그려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동경에 있는 아리카와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한 것도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훈련, 레크레이션 등을 제공하는 복지센터의 모습에서

단양군에서도 더 나은 노인복지 서비스 실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차량운행을 통해 직접 복지센터로 모시고 오는 등 더 많은 노인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려는 일본의 복지서비스 정신은 단양에도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단 한 번의 연수를 통해 배워온 다른 나라의 모범사례를 우리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지방의회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의원들이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번 연수의 성과는 의결기관인 의회의 의원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하여 한결 넓어진 시야로 질문하고 제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수기간동안 불편하신 다리로 뻑뻑한 일정을 견뎌내신 강미숙 부의장님과 적극적인 자세로 이번 연수에 참여하여 주신 조성룡 의원님, 장영갑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 김광표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곳은 일을 도맡아 주신 최성근 전문위원님, 이충휘 주무관님, 김혜영 주무관님은 물론, 이번 연수를 위해 일본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준 한국산업기술원 이재명 차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군민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정책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미숙 부의장>

‘의원 첫 해외연수’

일정 : 11월5일~9일

장소 : 일본 동경, 요코하마

관광으로만 가보았던 곳 일본은 가까우면서 먼 나라이다.

우리 정서상으로는 한없이 멀리 하고 싶지만 지리적으로나 실생활 면에서는 세계 어느 곳보다 가까이 해야 할 나라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곳, 아무래도 여행과는 마음가짐이 달랐다.

무엇을 얼마만큼 보고 배울 수 있을까?

우리 군민들이 염려하는 외유성 연수와는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까? 마음에 부담을 갖고 시작된 연수였다.

첫날’

나리타공항에 내려 남자의원들은 몸을 구겨 넣어야 할 것 같이 좌석이 촘촘한 작은 버스를 탔다. 30분쯤 달려 나카미세 거리의 한 식당에서 일본인의 깔끔하고 소박한 식사문화를 짐작케 하는 일본에서의 첫 식사를 하고 공식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 『동경 소방청 안전재관』

우리나라도 초중고 학생들이 소방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기관이 있지만 지진이나 해일, 태풍피해가 우리보다 훨씬 많아 일상화 되어있다고 생각할 만큼 일본의 특성상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와 똑같은 상황에서의 대피훈련, 연기 속에서 탈출훈련 등을 체험케 하여 공포를 덜어주고 침착하게 대응하게 해주는 것이 실제상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둘째 날’

아침8시30분 하코네로 출발~

### 『유황계곡』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다보이는 유황계곡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지옥 세계 같았다. 유황이 흘러 황량하고 피폐한, 아직도 곳곳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을 관광 자원화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도록 한다는 것이, 꼭 아름다운 경관만 관광자원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였다.

### 『아시호수 유람선』

유황계곡의 산에서 내려와 아시호수에 오니 ‘닌자버스’라고 하는 수륙양용 유람선과 해적선모양을 하고 갑판에 오르면 해적선장을 만날 수 있는 유람선이 운행되고 있는데, 단양강이 흐르는 우리 단양에도 평범한 유람선 보다는 뭔가 특색 있는 모양의 유람선을 운행하면 관광객들의 기억에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닌자버스’ 광고지를 한 장 챙겨두었다.

셋째 날

### 『창조도시 도시재생 우수사례 요코하마』

항구도시 요코하마는 원래 조선업을 주로 하는 우리나라 거제와 같은 도시였으나 조선업이 한계에 봉착하자 과감히 탈피해 도시를 현대화하고 산업구조를 바꿔 일자리를 만들어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 냈다. 요코하마는 도시경관이나 해안공원이 잘 계획된 거리와 건물들이 짜임새 있게 배치되었고, 도시 자체가 공원처럼 녹지조성도 적절히 조화가 잘되어 있었다. 100년 전 창고였던 건물을 빨간 벽돌의 쇼핑센터로 탈바꿈시킨 그들의 능력도 돋보였다.

### 『요코하마 시의회』

요코하마 시의회를 방문하여 그들의 의회운영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정당정치, 그곳은 회파를 구성하여 86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며 질의 응답 하는 과정에서 그곳의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 질문 했다가 너무 창피한 생각이 들었다. 모든 쓰레기는 사전에 분리수거하여 태우는데 그 열을 이용해 발전시켜 전기로 사용한다고 했다. 음식물 쓰레기는? 그런데 왜 생기냐고 하는데 너무 부끄러웠다. 우리 단양의 폐기물 처리장 모습이 머리를 스쳐가며 하루하루 높아지는 쓰레기 산이 눈앞에 어른 거렸다. 이건 우리의 국민성인가? 하는 자괴감마저 들고 쓰레기,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의 숙제라는 무거운 마음이었다.

### 『동경 임해부도심 오다이바』

쓰레기를 매립하여 도시를 재생시킨 오다이바를 걸어보며 우리나라 난지도를 생각했다. 좀 늦게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도 멋진 동네 하나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밟고 사는 것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놀랄 일은 아닌 듯 했다.

넷째 날'

### 『아라카와 노인복지센터』

도쿄의 아라카와 구는 인구21만5천, 노인복지센터 70여개가 있다고 한다. 인구에 비해 많은 숫자이다. 이는 일본의 고령화 사회가 우리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았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관, 요양보호센터, 주간보호센터, 치매안심센터 네 가지 기능을 한곳에 모아서 하는 곳으로 보였다. 우리나라보다 노령화가 빨리 찾아온 탓일까? 시설은 우리나라보다 낡았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가 노인복지센터 한곳에 집약되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우리나라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느껴졌다. 우리는 모든 시설이 현대화 되고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지만 각 시설이나 센터가 나뉘어져 있는 현실이다. 우리도 뭔가 정리가 되고 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통합 관리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회복지를 공부한 본인의 마음이 한결 무거웠다.

마지막 날'

일본의 정신적 지주 일본 황제가 거주하는 황거를 멀리서 보고 모든 일정을 끝내고 비행기에 올랐다.

'아는 만큼 보이고 느낀다.'는 말에 공감이 갔다. 나는 얼마만큼 느꼈는지 우리 단양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원으로서 처음 공무원연수인 만큼 여행 때와는 마음가짐부터 달랐고 보이는 것, 듣는 것 모두가 단양과 연결 지어지는 부담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첫 연수였다.

## <김광표 의원>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로 국외공무 연수를 다녀와서.

제8대 단양군의회 첫 번째 공무 국외연수지는 일본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여러 곳의 후보지가 물망에 올랐으나, 새로 의회가 구성되고 의사일정이 빠듯하였던 관계로 준비기간이 짧아, 비교적 가까운 일본이 연수 대상지가 된 것입니다. 연수를 준비하면서, 의원들 간에 해외 연수를 가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해외 연수를 간다고 하면 일단 주민들께서 해외로 놀러가는 거 아니야?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에는 실제로 별 소득 없는 해외연수가 있었음도 이해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한사람의 군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해외연수를 가되 연수의 기회를 잘 활용하자! 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의회에 입성하기 전 비교적 많은 나라를 여행해 본 경험이 있어서, 잘만 활용하면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제 8대 단양군의회 의원들은, 해외연수가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 이름뿐인 연수가 아닌, 전문을 넓히고 공부하는 연수로 만들어 보자고 결의하고 의회 사무과에서도 의원들의 주문에 맞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 있는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일본에서의 일정은

### 1. 동경 소방방재관 방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지진과 태풍, 해일과 화재 등의 자연재해가 유난히 많은 일본답게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서에는 방재관을 함께 설치하여 시민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일행은 화재와 지진 체험을 하고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도 위험물 취급을 해온 경험이 있기에 양국의 안전교육에 대해 자연스럽게 비교해 볼 수 있었는데, 일본의 장점은 실제와 같은 상황을 만들고 체험하게 하는 점과 실용적인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세부적인 규제에 대한 암기위주라 좀 딱딱하고 실생활에 실용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짧은 교육시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안전교육이

조금 더 교육에 재미를 주고 흥미를 유발하여, 실생활에 바로 적용되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개개인들에게 일상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우리가 일본의 방재교육에서 배울점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는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를 피하는 방법을 연기가 가득찬 방에 들어가서 체험한다거나, 지진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와 똑같은 진동을 P파와S파로 나누어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등 실제로 체험하고 느끼면서, 자연재해의 위력을 실감하고, 실제 상황발생 시 대처법을 자연스레 체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교육의 결과로 동일본 대지진때는 쓰나미가 왔을 때 잘 교육된 중학생들의 대처를 지역민들이 따라하여 생명을 구한 예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빈번한 자연재해로 불편하고 위험하지만, 꼼꼼하고 철저한 대비로 극복하고 있는 일본의 진면목을 잘 알 수 있는 방문이었습니다.

## 2. 우리나라의 인천과 같은 수도권 항구도시인 요코하마 에서는

요코하마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인 “미나토미라이 21 지구”를 시찰하고 요코하마 시의회에 방문하여 의회 활동상황과 현황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의견 교환도 하였습니다.

요코하마시의 미나토미라이 21 사업은, 조선소를 이전하여 거대건물과 쇼핑센터, 공원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으로, 일본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단양군 의회 일행은 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을 집중적으로 청취하였습니다.

요코하마시는 일본 제일의 항구도시로서 37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폐리제독에 의한 개항이후 일본 근대화의 창구역할을 해 왔습니다. 1980년대,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한계에 봉착하자, 과감한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 모습을 현대화 하고, 이를 통해 산업구조 재편과 일자리 창출, 도시경관 개선을 이루어 냈습니다.

의회는 8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의 정당과 비슷한 “회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원연령이나 의회 사무국 조직등이 우리나라와 흡사하며 매월 의회보를 발행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짧아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한

점은 아쉬웠지만, 지방자치와 의회활동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할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3.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노령사회에 진입하여 복지문제에도 한발 앞서 있는 일본의 노인복지 정책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기위해 도쿄도 아라카와구의 노인복지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의 노인복지 서비스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a. 사회복지센터 -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60세 이상 노인분들께 문화,스포츠 등의 활동을 제공하며 정신과 신체건강을 유지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단계의 복지서비스의 가장 큰 목적은 “개호예방”입니다. “개호”라는 뜻은 개별보호(care)로, 건강이 악화된 분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건전한 정신과 신체활동과 사회활동을 통해 삶을 즐기고 건강을 유지하게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b.대인서비스센터**

개호대상 어르신들을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센터의 차량을 이용하여 센터로 모시고와서 건강과 심신활동을 돌봐드리는 복지활동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과 인지증(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호보험(한국의 노인요양병원)에서 재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족들에게도 보호를 받고, 낮시간에는 센터에서 보호받으므로, 가족들의 부담도 덜고, 노인들은 가족과 헤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재가요양복지사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센터로 모시고 와서 돌봐드린다면, 보다 정형화 되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보였습니다.

아라카와구는 도쿄도내 23개 특별구 중 하나로서 인구는 21만 5천명입니다.

구내에 약 70여곳의 노인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 3000명 당 1곳의 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일평균 155명이 이용을 한다고 하니, 전체인구의 5%, 노인인구의 25%(고령화율 23%적용시) 정도가 매일 이용하고 있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아라카와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면서 느낀점은..**

우리나라도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구나..(일단 시설이..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시설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좀 더 효율화 한다면, 같은 예산으로도 어르신들을 더 행복하게 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의 방문으로 일면만 보았지만, 역시 일본의 꼼꼼하고 세심한 면이 연수 내내 (소방청이나 의회방문 시에도) 돋보였습니다. 손님을 맞는 것도 꼼꼼한 준비로 맞았고, 복지센터 운영도 시설보다도 내용에 집중하고 세심하고 편안하게 운영되는 듯 보였습니다.(한편으로는 우리나라도 매우 잘 하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마침 단양군 의회 방문 전일까지 자체 문화제를 진행하여서 센터 어르신들이 활동하며 만드신 작품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수준 높은 작품에서, 행복하게 취미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정서적인 면이나 활동모습이 비슷한 점이 많음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단양도 제도를 좀 더 보완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한다면, 초고령화 시대에도 우리 부모님세대들께서, 나아가 우리세대들도 행복한 노령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저 역시 의원활동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잘 살려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고민하여, 우리 단양이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탬 것을 다짐하며, 공무연수 후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 <장영갑 의원>



일본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민의 모습에 가까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한 수준의 경제생활을 누리며 자신만의 문화적 취미를 즐기고 있다. 자신과의 다름에 인색하지 않고 남들의 기준과 관계없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데 자유롭다. 가이드의 말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는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개인은 '개인으로서' 대우받고 활동한다. 5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선진 일본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반성하게 되었다.

아라카와 노인 복지센터를 방문했을 때 이곳의 보호사들은 휠체어 운전법이나 중증 노인환자들을 다루는 법 등을 세세하게 교육을 받는다고 하여 놀랐던 기억이 있다. 단순히 보호만 하는 곳이 아닌 체계적으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이곳의 시스템이 부러울 따름이었다.

지내는 동안 노인들이 생활 곳곳에서 생활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노인 정책은 재활과 자립에 중심을 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이가 먹었다고 집에서 편하게 쉬라고 하면 화를 낸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노인 공경 사상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나날이 고령화되어 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노인을 하나의 자립인으로서 대하는 문화가 필요하고 느꼈다.

이번 일정을 통해서 일본의 문화와 봉사정신 등 다양한 면에 대해 느낄 수 있었다. 대도시나 소도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준법정신을 발휘하여 규칙을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의 생활상은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사회 역시 범국가적으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설확충이나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개인 스스로의 배려정신,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결국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조성룡 의원>

- 연수를 계획하면서 관광성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사전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군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노력
- 우리지역과 비슷한 산림, 환경, 관광, 안전과 군민의식 변화에 도움이 될 만한 연수 기회가 되고자 나름대로 각오하고 출발한 연수였는데 표현은 부족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연수였습니다.

### ▶2018.11.5 (월) 첫째날 ◀

- 03:30 단양 출발
- 06:10 인천공항 도착
- 09:00 인천공항 이륙
- 11:25 동경 나리타 공항 착륙
- 12:50 전세버스로 동경 나리타 공항 출발
- 14:50 ~18:00 동경소방청 혼쇼 방제관



우리 의원들도 3시간동안 지진대비훈련, 화재시 대피훈련등등 실제상황에 맞춘훈련을 받으면서 지진체험코너, 연기체험코너, 소화 체험코너, 응급처치 체험코너, 폭풍우 체험코너와 방재 극장 관람등 안전에 대한 많은것을 체험하였다  
그리고 별거 아니것같지만 안전을 생각하여 버스에서 내릴때마다 발판이 나와 있었고 엘





지진을 대비하지 않은게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와 너무 비교 되었어요





방재교육을 받는 자세가 시간때우기식이 아니라 너무 진지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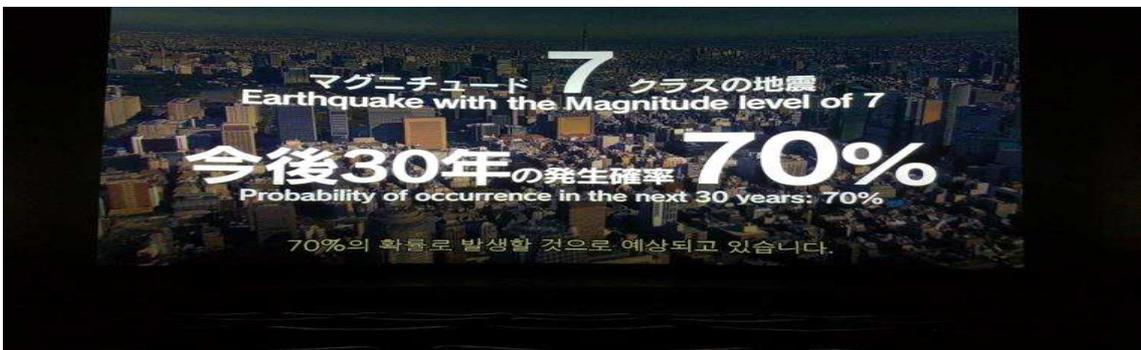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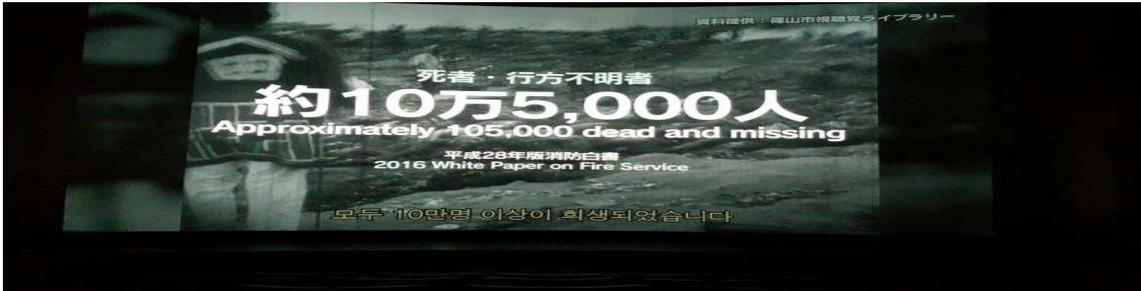
유치원, 초.중.고생들은 의무적으로 훈련을 받고 일반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실제 상황훈련을 방불케 했어요



기관 방문이라 정장을 했어요



"소중한 사람의 생명 지킬수 있습니까? "동영상 시청시간도 있었어요





소방청에서 퇴직하신후 실버강사님으로 활동하시는데 교육 열정이 대단했어요



안전과 생각하여 엘리베이터 숫자도 입체형으로. 만들어 놓는 세일함도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높다는 도쿄 나리아 아쿠아라인 송전탑은 덤으로 보았어요



별거 아니것같지만 안전을 생각하여 버스에서 손님이 내릴때마다 발판이 나와 있어 아주 좋았어요

▶2018.11.6(화) 둘째날 ◀

09:00 비가 온다는 예보속에 도쿄에서 가까운 하코네국립공원일대 아시호수유람선. 온시 공원등을 견학하면서 지역의 산림자원과 단양호등에 접목할수는 없을까 깊이 고민해보는 소중한날입니다

해저터널 9,600m를 포함해 총15.1km를 하와사키 중공업을 지나 요코하마 시내중심을 고속도로가 지나는 특이한 도시를 벗어나 일본 고속도로 휴게소 중에 매출이 가장 많다는 에비나휴게소에서 일본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메론빵 맛을 보는 잠시 휴식도 가졌습니다.

국립공원 관리및 보전실태를 보면서 느낀것은 경치는 너무 좋은데 도로도 좁고 큰 불편함이 많을듯해서 여쭙보니 규제가 심해서 쉽지 않다고하네요 하코네케이블카와 유향온천계곡은 정말 좋아 보였어요

내일은 요코하마 시의회방문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이나 제가 잘못 듣고 잘못 알고 있을거 같아 조심스럽지만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에비나휴게소 건물 양쪽에 화장실 안내표지판을 보면서 고객들에게 이정도 서비스정신 감동 입니다 우리나라 휴게소에 이렇게 화장실 표시한것 ?



동경에서 100km 떨어져있는 후지산(3.776m)도 볼수 있다고 하는데 안개가 자욱해서 후지산은 볼수 없었지만 하코네케이블카는 부러웠어요





린자버스 승차비는 2.800엔인데 참시후 호수에서 배의 역할을 하려고 손님 탑승중입니다  
저는 구경만 ㅎㅎ



린자버스 드디어 힘차게 칼테리호수인 아시아호수로 출항합니다. 머시않아 단양호에서도  
출항할 날을 기대해봅니다



하코네국립공원지역에 칼테리호수인 아시호수 유람선운행은 단양수중보가 준공되면 단양  
호와 아주 비슷한곳이라 각별하게 관심 가지고 살펴 보았어요



해적선을 25분간 탔는데 650명 정원이 만실입니다. 포토존이 많은것도 괜찮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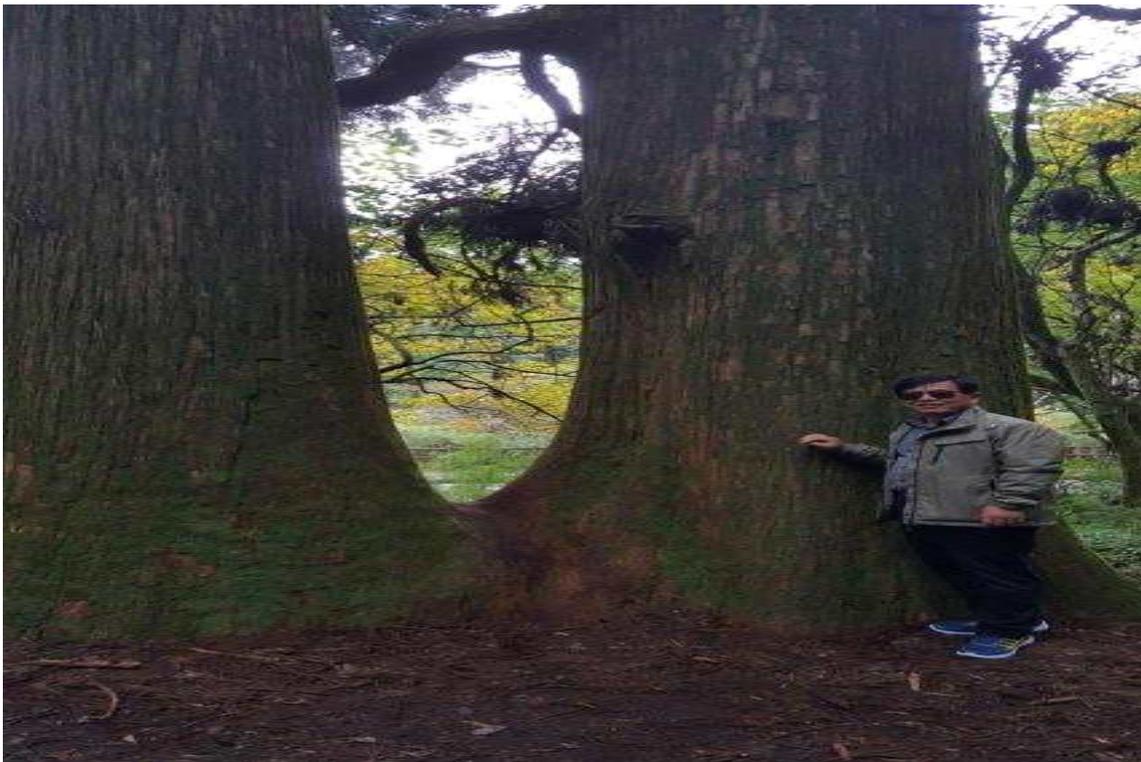
국립공원내 온시공원에서 우리가 나무를 심어야하는 필요성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500년 전 동경으로 걸어 다니는 도로변에 삼나무를 심은 현재모습



웅장한 숲을 자랑하는 하코네 삼나무길을 후손들이 빛을 보고 있는 실감나는 현장입니다



단양면적 83%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민들과 함께 고민해야하는 굳은 의지가 생깁니다





동경으로 이동해서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성공한 롯폰기힐스를 탐방하면서 리더 한사람의 이런 변화를 주는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에 분이 그 유명한 분인데 늘 가위만 내고 있어서 제가 바위로 이겼어요 ㅋㅋ

▶2018.11.7 (수) 셋째날 ◀

창조도시 도시재생 우수사례 373만명이 살고있는 요코하마는 도쿄 남쪽에 위치한 항구도시로 1859년 개항한 역사적도시로 알려져있고

동서양 문화의 조화와 아름다운 바다의 경치로 유명해졌다. 마틴타워에서는 숨막힐듯 아름다운 바다와 100여년전 빨간벽돌 세관 창고를 쇼핑물로 재생시킨 아카렌카 풍경. 일찍이 항구 시설이었던 장소가 현대식의 세련된 가게들과 카페. 레스토랑으로 개조된 시설들을 조망할 수 있다.

도쿄역과 시부야역에서 요코하마역까지 약 30분정도 소요되고 아시아 최대규모의 차이나타운도 요코하마의 자랑거리입니다

혹이나 제가 잘못 듣고 잘못 알고 있을거 같아 조심스럽지만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요코하마 국제여객선 터미널 입구를 하마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주위 모든 바닥을 목재를 사용했는데 재질이 참 좋았어요. 시루섬을 이렇게 했으면



그랜드호텔앞 바닷가 쓰레기 매립장을 마시다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인기가 대단하다.



작은것 같지만 야코하마 시의회에서 세밀한 부분까지 준비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정문을 비롯해 사무실마다 층층마다 친절하게 맞이하고 진지한 설명등등

시의회와 시장은 독립, 대립의 입장에서 시정을 담당하는 자동차 바퀴와 같은 관계에 있으며 서로 견제함으로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면서 공정한 행정을 확보해 시민의 의사를 존중한 더 나은 시정운영을 목표로하고 있는 것이 우리와 거의 비슷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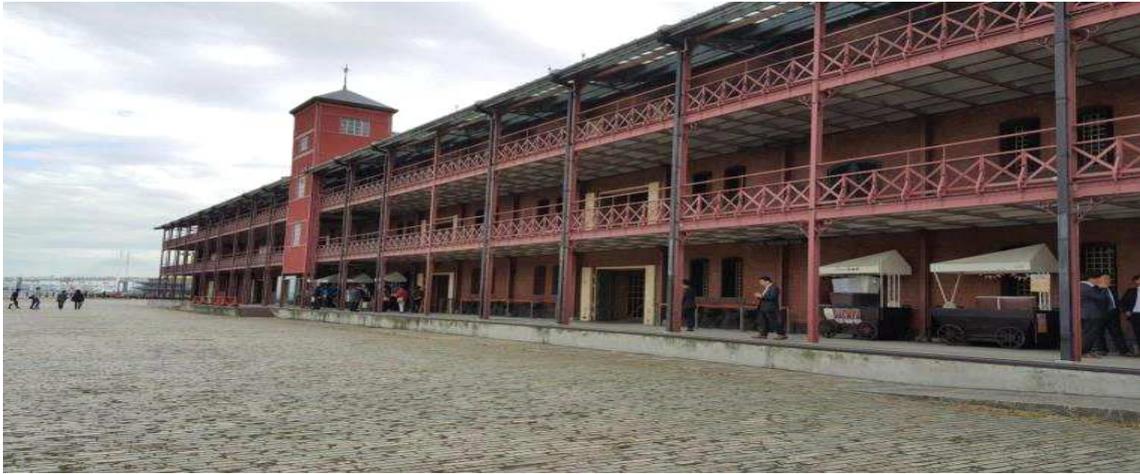
요코하마시의회를 방문하여 8개 상임위원회 86명의 활동상을 들을수 있었는데 음식물쓰레기없는 도시라는것도 자랑거리였습니다





요코하마 중심지역 미나토미라이 21지구의 계획과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 들으면서 이렇게도 변화를 주는 저력에 놀랐어요





100여년전 빨간벽돌 세관 창고를 쇼핑물로 재생시킨 아카렌카 풍경.일찍이 항구 시설이  
있던 장소가 현대식의 세련된 가게들



개장과 동시에 그 넓은 상가가 엄청 북적대면서 활기가 띠네요



야코하마 항구 옛 도크식 모습을 지금까지 그대로 보전하는것은 우리와 조금 다른 모습 이네요 단양수중보 선착장도 도크식으로 검토했었는데 ~~



하늘이 보이시나요? 보신분들도 계시겠지만 유명한 상가들이 하늘로 착각할정도로 아름답게 해놓았어요. 구경시장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

▶2018.11.8(목) 넷째날 ◀

아라카와 노인복지센터를 공식 방문하여 상세한 사업별 운영현황 설명과 질의응답시간후 시설 견학을 하였습니다

아라카와 구의 인구는 215,000명인데 65세이상 어르신들이 5만여명이고, 고령화율은 23.29%라고 합니다.

방문한 복지센터는 1970년 설립하여 1995년부터 아라카와구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관리 하였고

2006년부터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정관리단체로 지정되었고 2017년 45,640명이 이용하여 하루평균 155명이 이용 실적이 있었어요

아라쿠와 구에는 복지센터가 70개정도인데 구에서 설립한것 9개소외에는 개인 시설장이 운영하는데 구에서 설립한곳은 모두 목욕탕이 완비되어 있고, 방문한 복지센터가 수범사례센터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아라카와 구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어디나 사회복지혜택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 요양사는 시간당 1,500엔이라고 하네요

두번째 방문코스는 동경도청과 동경도의사당이 함께있는 곳이었습니다  
동경도청은 1990년 1조5천억엔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축한 건물로 243m 높이의 45층 건물로 1991년 4월에 개청하여 13,000명의 도청직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라카와 노인복지센터 이용자들이 매년개최하는 문화축제 작품입니다 금년에는 2018.11.1~11.7 까지 축제였어요



아라카와 노인복지센터를 공식 방문하여 상세한 운영현황과 시설 견학









동경도청과 동경도의사당이 함께있는 곳이었습니다 동경도청은 1990년 1조5천억엔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축한 건물로 243m 높이의 45층 건물



▶ 2018.11.9(금) 다섯째날 ◀

토쿄 나이트공항 13시20분 비행기라 11시까지 공항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오늘은 공식일 정 없이 일본황제가 거주하는 황거 및 이종교를 견학후 모든 일정을 마치면서 잠시동안 일본에서 슬쩍 슬쩍 가볍게 느낀것들 혹은 제가 잘못 듣고 잘못 알고 있을거 같아 조심스럽지만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민들도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고 계시긴 하는데 일본에는 병마게 분리통을 걸어놓고 병과 병마게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네요



화장실에서 불일을 보고 잠시 머뭇거리는 3분도 안되는것 같은데 물이 자동으로 나와 깨끗하게 하는 편리함이 있네요



청소하시는분이 사명감을 가진듯 구석구석까지



동경도청 옆 다리밑에서 밤에 이곳에서 주무시는분들의 특이한 경우도 보았어요



도로변 은행 자동인출기에도 이렇게 기다리는곳을 표시해 놓으셨네요



상가별로 가스통 보관장소를 깨끗하게 통일해서 모두 설치를 해 놓았어요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고객들의 관심을 갖게하네요



식당마다 테이블로 메뉴 주문을 이것으로 하니 편리하고 인건비도 절감되고 좋을듯해서 우리도 이것으로 하면 좋겠어요





공항에서 부터 웬만한 일은 경력자 노인분들이 재취업을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더 효과적 이라 하네요



의회 발언대 높 낮이를 자동 조절할수 있어서 장애인들에게 배려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사과 꼭지를 모두 자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맛을 살리기 위해 사과랑 모든 과일 꼭지를 그대로 살려 놓는다고 하네요



프라스틱의자를 한개짜리 세개짜리등등 자유롭게 만들어 지그재그로 놔두니 아주 편리하게 사용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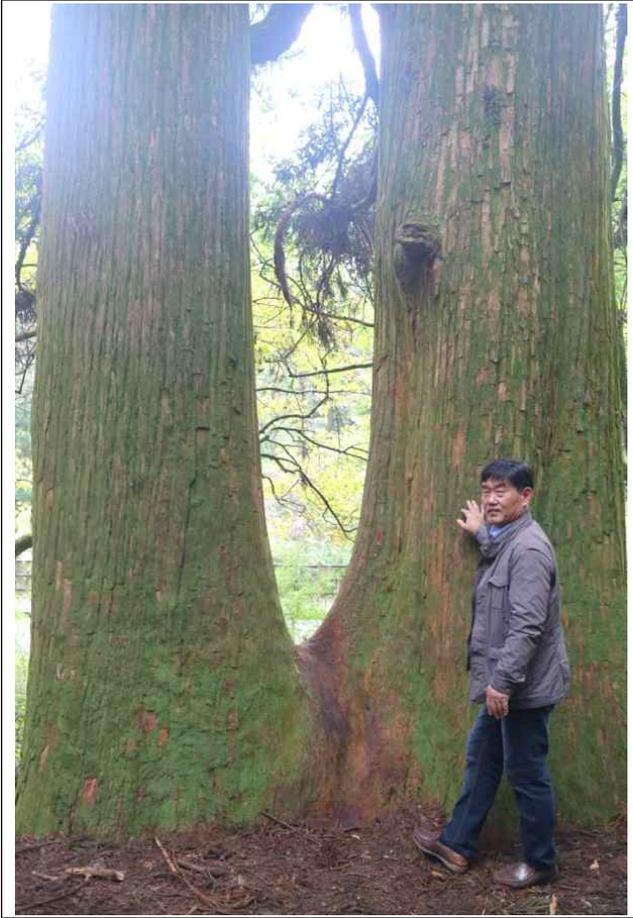
안전과 편리를 생각해서 손잡이를 웬만한곳에 모두 설치해 놓았어요



이것은 귀찮을듯도 한데 습관이 되신것 같았어요



## <오시백 의원>



나리타 공항에서 본 일본의 첫 느낌은 깨끗하고 조용다는 것이었다. 도시 전반적인 거리는 질서가 잡혀있고 종이 하나 떨어져 있지 않은 일본인의 국민성에 놀랐다.

본 의원이 일본에서 느낀 점은 일본의 인구규모와 공업화를 고려 해볼 때 상대적으로 환경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미세먼지로 요란했음에도 일본의 깨끗한 공기는 꽤나 인상적이었다.

100여년 전의 창고를 쇼핑몰로 재생시킨 아카렌카나 요코하마의 중심지역인 미나토미라이 21지구, 동경 내 쓰레기 매립지를 공원과 도심지역으로 재생시킨 오다이바 등을 방문하며 일본의 환경보전 노력과 도시재생 기술에 대해 놀랄 수밖에 없었다. 행정기관에서도 1, 2년의 단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지 않고 10년이나 20년

의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행정의 이루어지고, 그것이 기관장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이어진다는 점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작용을 한 것이라 생각하니 다시 한 번 단양군의회 의원으로서 책임감이 느껴져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리라 마음먹은 4박 5일이었다.

## <이상훈 의원>

### □ 도쿄 소방청 혼조 방재관

도쿄 소방청 혼조 방재관은 1995년 4월27일 동경소방청(지자체)이 개관하였으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상황에 시민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방법을 전파하는 한편 재난에 대한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즐거운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전시관 목적으로 설립 되었다.

관람이 시간제로 운영이 되어있으며 지진, 연기, 풍수해등 모의 재해 체험 시설물들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군도 평소 철저한 안전교육과 민간차원의 자조, 공조등의 지역 유대관계유지로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하며, 형식적이 아닌 위험 상황에서 순간 대처할 수 있는 일반주민의 주도로 지역 방재능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재난계획 및 훈련이 필요하다.

### □ 요코하마 시의회

요코하마시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인 의회로 구성 되어있었으므로, 독립대등관계를 유지하는 시장, 의장(의회의원)을 18세이상 선거권을 가진 시민이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의원정수는 조례에 의해 86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18개구 각구별 인구비례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 4년으로 활동한다. 같은 주의, 주장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된 회파가 결성되어 활동하며 본회의에서 발언시간은 소속회파 의원수에 비례하여 정해진다.

회의는 정기적으로 연 4회 소집되는 정기회, 필요한 경우 소집되는 임시회가 있다.

의안처리절차는 본회의를 의안상정과 효율적인 의안처리를 위한 8개상임위원회 (정책·총무·재정위원회, 국제·경제·항만위원회, 시민·문화관광·소방위원회, 어린이청소년·교육위원회, 건강복지·의료위원회, 온난화대책·환경창조·자원순환위원회, 건축·도시정비·도로위원회, 수도·교통위원회)를 통해 세부심의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보고 후 의결하게 된다.

시정에 대한 시민이 의견이나 요망사항이 있으면 누구나 진정서나 청원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청원서를 제출할때는 시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되나, 진정서는 소개없이 제출할 수 있다. 청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후 본회의에서 채택, 미채택을 결정 후 결과를 청원자에게 통지하며, 진정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후 본회의에 보고한다. 그리고 행정에 대한 요망에 관한 진정서 대해서는 의장이 시장의 회답을 구하고, 그 답을 진정자에게 통지한다. 진정 내용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도 하지않고 시장에게

회답을 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보좌는 의회의 정책조사과에서 맡고 있으며, 회파별로 담당 정책 조사과 직원이 배정 된다. 의회직원의 채용은 요코하마시에서 하고 인사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다.

## □ 미나토미라이21 (요코하마 도시재생 사업)

요코하마는 1859년 개항 이래, 세계각국의 사람, 문화, 교류, 무역도시로 일본근대화의 원천이고, 세계를 향해 열린 도시로써 발전 해 왔다. 현재도 인구 373만명을 유지하는 국제무역항구가 있을 뿐만아니라, 하네다국제공항을 비롯한 주요도시들과 연결되는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녹지와 주거환경, 우수한 인재, 광대한 마켓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도시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컨벤션개최지로써 혹은 관광지로써 국내 외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방문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도시이다.

특히, 미나토미라이21(미래항구21)지역은 높은 수준의 인프라가 형성되고, 최적의 비즈니스환경을 갖춘 도시로써 연간 약 7900만인이 방문, 10만 5000천면이 활동하며,요쿠하마를 대표하는 거리로써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미래항구 21은 요쿠하마의 인터프론트를 여는 새로운 도심을 만들기 위해 1965년에 발표, 요쿠하마의 고도성장은 수도인 도쿄가 전후 급격한 경제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1950년대 일본은 고도 경제성장기였다. 동경 수도에 경제, 문화, 정치의 중심이 되던 시기 도심 집중화 현상을 해결하기위해 도쿄 외곽으로 주거, 상업시설 등의 이전계획을 수립한다.

도쿄로 몰리는 인구의 주거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인근지역인 요쿠하마시에 계획적으로 재정비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기회를 얻게 된다.

도심부강화사업, 항구 북쪽 뉴타운건설사업, 토지조성사업, 매립지 조성, 고속철도 (지하철)건설사업, 고속도로 건설사업, 베이브리치 건설사업등 이로써 교통의 요지가 되면서 급변화 하고 국제무역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미나토미라이 21 사업의 목적은 요쿠하마시의 자립성 강화, 항구기능의 효율적 운영 항구 주변, 해변 주변의 공원화 유원지 녹지대를 형성해서 단지 물건만 오가는 곳이 아닌, 국제교류기능과 항구의 기능을 모두 집중시킨다. 도쿄에 집중되어 있는 수도의 기능을 분할하여 상업, 국제교류등의 기능을 집중 확대하였다.

## □ 아라카와 노인 복지센터

아라카와구는 인구는 215,000명, 그중 65세이상 고령자가 50,000명으로 23.29%로 도쿄 23개특별구 중 면적은 두 번째로 작고, 인구밀도는 두 번째로 높다.

아라카와 노인 복지센터는 1970년에 구의 사업으로 시작되어, 1995년 사회복지협의회가 구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6년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정관리(계약기간 5년) 단체가 되었다.

2017년도 연간 이용자수는 45,845명 하루평균 155명이 찾고 있다.

데이서비스는 정원이 있으며, 일반인은 정원이 35명, 인지증분은 정원 10명이다.

아라카와 노인복지센터는 60세 이상 노인의 복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에 의해복지센터와 개호보호법에 의한 데이서비스등 두가지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비교적 건강하신분들이 건강증진, 문화, 교양활동을 즐기는 장소로 운영이며, 노인복지센터의 강좌는 수예강좌, 쿨트강좌, 가라오케체조강습회, 약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 스마트폰사용방법, 종이접기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노인복지센터의 연간행사는 칠석가라오케대회, 크리스마스 가라오케대회, 문화축제행사, 연극회, 작품발표회, 음악회, 일본전통 만담대회등 다양한 행사가 있다.

데이서비스는 개호가 필요하지만,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 교통편이 불편해서 센터로 나오기 힘든 분들을 위해 차량운행하고 있다.

이용대상자는 개호보험혜택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연령자가 이용자가 되며 단, 만 60세~64세분인 경우는 공적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데이서비스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와 인지증(치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하는 서비스로 나뉘어 진다. 목적은 이용자의 기능훈련(케어)과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라카와노인복지센터는 만 60세이상의 모든 분들의 생활과 건강상담 및 개호예방의 추진에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개호가 필요하지만,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 교통편이 불편해서 센터로 나오기 힘든 분들을 위해 차량운행하고 있습니다.

데이서비스 구체적인 운영내용 살펴보면

서비스 시간대별 1일

오전 9시 차량으로 댁에서 센터로 출발

9시반 도착, 차를 마시면서 간호사가 혈압을 재고 열을 재는등 기본 건강검진 측정

오전 10시 3층 대욕장(목욕탕)입욕

오전 11시 입욕후 천천히 이야기 나누거나 레크레이션을 갖는다.

오전 11시 30분 의자에 앉아 간단한 조작이나 체조 등을 한다.

정오 점심식사

오후 1시 식사후 구강케어 (양치질) 습관이 되도록 한다.

오후 1시반 오후 활동은 매일 다르다.

달력만들기, 가라오케 등 본인이 하고 싶은활동 (자유놀이시간)선택활동을 진행한다.

기능훈련은 개별 행해지는 경우 간호사나 물리치료사와 같은 이들이 대응해 준다.

오후 2시반 간식시간

오후 4시 돌아가기 전에 전문스텝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며 보낸다.(?)

오후 5시 서비스 종료.. 차량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간다.

노인복지센터의 기능은 우리 단양군과 비슷하지만 데이서비스와 같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의 복합적인 복지지원 정책은 우리군에도 노인복지회관과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